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건강심사평가원 발표 '뇌졸중 최우수병원' 선정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5월 27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종합병원 이상 20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종별 평균 87.64점, 전체 평균 90.56점보다 높은 97.50의 점수를 획득하여 본원이 뇌졸중 치료 최우수 병원임이 증명되었다. 또한,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모두 상근하는 A등급 기관으로 분류됐다.

진료과정 지표조사에서도 △금연교육 실시율 100% △뇌 영상검사 실시율(1시간 이내) 97.1% △지질검사 실시율 93.1% △정맥 내 혈전용해제(T-PA)투여율(60분 이내) 95.2% △항혈전제 투여율(48시간 이내) 95.3% △항혈전제 퇴원처방률 99.6% 등을 받았다.

이번 결과는 동국대학교병원의 전문인력 현황과 초기진단에서 치료 체계까지 뇌졸중 치료가 전국 최고 병원임을 입증한 것이다.

02 완벽한 재난진료를 위한 재난모의훈련 시행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2일 18시 1층 로비에서 재난모의 훈련을 시행했다.

이날 훈련은 30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김포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국제선 비행기가 불시착하고, 응급의료센터에 제보전화로 걸려오는 설정으로 시작했다.

의료진, 진료지원부서 등 약 100여 명의 교직원은 동시다발적으로 도착하는 30여 명 환자의 부상상태에 따라 중증환자 3명은 즉시 수술하고, 18명은 중환자실·병동으로 각각 입원시켰다. 또한, 상태가 양호한 6명은 퇴원시키고, 화상이 심한 1명은 타 병원으로 이송했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은 건물붕괴, 화재, 대형교통사고 등 주위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여 매년 재난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날 훈련은 세월호 사고로 재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시점에 시행되어 그 의미가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재난 TFT 위원장인 응급의료센터 도한호 교수는 “재난이 발생하면 다수의 중, 경중 환자들이 동시에 유입되므로 신속한 치료를 위해서 중증도에 따라 환자들을 선별하고 진료구역을 정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훈련들은 지역 사회에서 재난이 발생할 시 병원의 대처능력을 한 단계 더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03 2주기 의료기관 인증 TFT 2차 경과보고회 개최

2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성공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2차 경과 보고회를 28일 17시 제 2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병원장을 포함하는 최고의결위원, 영역별 위원장과 수석위원 및 총괄위원 등이 참석한 이번 경과보고회는 ▲환자안전 및 진료영역 ▲공통영역 ▲지표영역별로 수석위원이 각 해당 TFT의 현재까지 진행경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했다.

주요보고내용으로는 Q실에서 2주기 인증규정을 검토했고, 6월 27일까지 규정심의위원회에서 규정을 확정하며 병원장의 결재를 얻어서 7월 1일부터 전 병원 부서에 적용할 예정 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1차 경과보고회에 보고되었던 인력과 시설장비구입 등의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 및 점검이 있었다. 채석래 병원장은 “전 교직원들의 도움으로 2주기 인증준비가 계획대로 준비되고 있다. 그런데, 규정을 만드는 것도 중요 하지만, 전 교직원들이 잘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전 교직원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04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과 (주)쌍용양회, 강원도 영월 지역주민 의료봉사활동 펼쳐

동국대일산한방병원은 (주)쌍용양회와 공동주관으로 5월 25일 영월 지역주민 의료봉사를 시행했다.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복지회관에 임시진료소를 마련하고 지역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료 및 투약, 물리치료를 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작년 동해지역 의료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의료 봉사에는 쌍용양회에서 사전에 진료대상자 선정과 환자이송, 진료소설치, 의약품 등 행사 제반 비용을 지원했고, 일산한 방병원에서는 김동일 한방병원장을 비롯하여 정승현 한방 내과교수, 진영숙 한방간호팀장, 재활의학과 최명렬 기사장 등 총 25명의 교직원이 동참하여 영월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살폈다.

한편, 의료봉사 전날인 24일에는 일산한방병원봉사단과 쌍용양회 임직원이 용평리조트에서 간담회와 친교의 자리를 가져 두 기관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우의를 다지기도 했다.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은 앞으로 쌍용양회와 공동으로 연 1~2회 정기적으로 동해시와 영월군 지역 등에서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05 고양지역 의료IT분야 집담회 개최

14년도 제2회 고양지역 의료IT분야 집담회가 5월 27일 동국 대학교일산병원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본 집담회는 대한병원정보협회 고양지회(대양회) 주관으로, 고양지역 병원간 업무공유와 인적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격월로 고양지역 각 병원을 돌아가며 개최 되며, 이번에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의료정보팀에서 행사 지원을 맡아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다.

이번 주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적용사례'로 동국대학교 병원, 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에서 각 병원의 관련 사례를 공유하였다. 집담회가 끝난 후에는 저녁식사 겸 만찬을 통해 지속적인 의료 IT 협력과 정보 교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의료정보팀은 앞으로 집담회와 같은 정보 공유의 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각 병원이 WIN-WIN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06 감성스쿨 Series 2 “뷰티특강”

간호부는 5월 21일 감성스쿨 Series 2 ‘뷰티특강’을 개최했다. Series 2 ‘뷰티특강’에서 재직간호사 30명은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나를 아름답게 꾸며보는 시간을 가졌다. 피부관리 방법 및 메이크업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와 메이크업을 통한 이미지 함양법 등에 대한 교육받고, 직접 시연을 통해 본인

에게 맞는 메이크업 비법을 습득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석한 간호사들은 “오늘 배운 메이크업 방법으로 이미지를 변화하여 환자들에게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감성스쿨은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간호사 조직사회화 증진 프로그램으로 올해 여덟 차례 진행하며, 3차 감성스쿨은 ‘내 인생의 비타민’의 주제로 6월 24일 개최된다.



주인공 4호

72병동 한 명희 수간호사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72병동에는 72병동에서만 느낄 수 있는 편안함이 있어요. 잊고 있었던 엄마의 따뜻한 품이 느껴집니다. 바로 한명희 수간호사가 계시기 때문이지요. 한명희 수간호사는 항상 솔선수범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척척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리더십은 믿음과 신뢰를 주지요~

—운영지원팀 주주환—

알 리 미

불교관련 순수회화작품 전시회 기간 : 6월 2일 ~ 6월15일 | 장소 : 1층 전시장

마하연실내악단음악회 일시 : 6월 5일 (목) 12:00 | 장소 : 1층 로비

2014년 제2차 간호윤리 워크샵

일시 : 6월 5일 (목) 16:00 | 장소 : 중강당 | 대상자 : 재직간호사 30명

